■ 민족문화연구 제84호(2019.08.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263-290.
http://doi.org/10.17948/kcs.2019..84.263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진실’ 사이
—東谿 趙龜命의 역사 소재 산문 연구—

정하정(鄭夏汀)*

목 차

1. 서언
2. 소식에 대한 남다른 애호와 비판적 계승
3. 역사의 여백에 틈입한 서사의 확장
4. 역사 기록을 벗어난 상상적 연출 구성
5. 나가며

국문초록

조귀명은 통념을 거부하며 자신만의 解悟와 독자적인 사유를 강조한 문학론 및 그에 상응하는 개성적이고 파격적인 문학을 남겼다. 역사 소재 산문 역시 그것들과 궤를 달리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그의 문학이 가지는 섬세한 결이 ‘독자적’, ‘개성적’이라는 명명 하에 매몰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실 기록으로서 인식되었던 역사를 소재로 한 산문에서 그가 보여준 문학적 특징을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그의 문학이 통념과 보편이라는 범주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가늠하려는 시도였다.

그 결과 조귀명의 역사 소재 산문이 보이는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첫째, 蘇軾에 대한 특별한 지향을 보였던 조귀명은 역사 소재 산문이라는 지면을 통해 소식의 문학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자 하였는데, 이 점이 누구보다 강하게 드러났다.

둘째, 유교의 이념 윤리 대신에 현실 결과를 중시하는 관점을 제시하고, 일반 擬作과는 다른 관찰자의 시점을 취하여 역사 기록에 틈입한 서사의 확장을 이룩하였다.

셋째, 역사에 존재할 수 없는 장면을 자신의 상상력을 통해 연출하면서 허구성, 서사성, 과장된 묘사, 극적인 연출 등을 갖추는 한편, 통념이 된 주제를 자신만의 논리 구조를 통해 제시하였다.

주제어: 東谿, 趙龜命, 歷史, 散文, 史論 散文, 科表, 擬作, 蘇軾, 敍事, 想像.

1. 서언

본고는 東谿 趙龜命의 산문 가운데 역사 소재 산문[1]을 대상으로 그 문학적 특징을 고찰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조귀명은 조선 후기 사회에서 꽤 돌출적인 인물로, 주자학에 경도되지 않은 한편, 문장의 가치를 道의 전제 위에서 찾는 道文一致의 통념을 거부하였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그에 대한 연구는 사상의 개방성 및 문학론·예술론의 특성에 집중되었고,[2] 그 이후로 詩, 傳, 假

1) 본고에서 지칭되는 '역사 소재 산문'은 역사서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일화를 소재로 삼아 작성된 한문 산문을 지칭하며, 이는 역사에 대한 논설이라고 할 수 있는 史論 散文, 과거시험에 쓰였던 역사 제재의 科表 등을 포괄한다. 사론 산문의 개념에 대해서는 백진우, 「조선후기 史論 散文 硏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1a, 1-2면 참조.

2) 이종호, 「18세기 초 사대부층의 새로운 문예인식」, 『한국근대문학사의 쟁점』, 창작과 비평사, 1990; 강민구, 「東谿 趙龜命의 文學論과 散文世界」,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90; 「英祖代 文學論과 批評에 對한 硏究—趙龜命·林象鼎·李天輔·李廷燮을 中心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7; 이태희, 「趙龜命의 散文 연구」, 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0; 이홍식, 「東谿 趙龜命의 主意論적 글쓰기와 奇의 미학」,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2001; 강명관, 『공안파와 조선 후기 한문학』, 소명, 2007; 송혁기, 『조선후기 한문산문의 이론과 비평』, 월인, 2007; 박경남, 「趙龜命 道文分離論의 변화와 독자적 인식의 표현으로서의 문학」, 『국문학연구』 제17호, 국어국문학회, 2008; 「16·17세기 程朱學的 道文一致論의 균열과 道文分離的 경향」, 『고전문학연구』 제35집, 한국고전문학회, 2009; 박상영, 「東谿 趙龜命의 肉體的 疾故와 現實 超克」, 『고전과해석』 제6집,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09; 정은진, 「18세기 書畵題跋 연구(2)—숙종·경종시대 息山 李萬敷와 東谿 趙龜命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제44집, 한국한문학회, 2009; 박경남, 「18세기 文學觀의 변화와 '개인'과 '개체'의 발견(1)」, 『동양한문학연구』 제31집, 동양한문학회, 2010; 김수진, 「乾川藁 評點批評 再論」, 『고전문학연구』 제39집, 한국고전문학회, 2011; 전상모, 「東谿 趙龜命의 서화비평에 관한 연구—장자적 사유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제68호, 동양철학연구학회, 2011; 「東谿 趙龜命의 書

傳, 遊記, 碑誌・傳狀 등 일부 문학 작품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다.[3] 그리고 최근에는 작가의식과 연결하여 문학 작품을 분석한 연구가 제출되었다.[4] 이상의 연구를 통해 그의 문학론 및 문학의 특징적 면모가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얼마만큼 독자적이고 개성적인지 검토하는 데에는 나아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 게다가 문학 자체를 분석한 연구가 파편적으로 이뤄지다보니 그의 문학 세계 전반을 조명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그간 연구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작품을 다른 작가의 그것과 비교함으로써 조귀명의 문학의 특수성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작품들은 연구 대상으로서 무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역사 소재 산문은 그러한 연구 대상 중 하나이다. 주지하다시피 전근대 사회에서 역사는 문인들에게 필수적으로 익혀야 할 학문이자, 동시에 문학의 소재이기도 하였다. 조귀명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左傳』의 부분들을 별도의 제목하에 기록하였고,[5] 역사서를 읽다가 유사한 역사 사건들을 모아 정리해두기도 하였다.[6] 그만큼 문학 소재로서의 역사에 관심이 컸던 인물이다. 실제로 그가 남긴 산문 가운데 역사를 소재로

畫認識의 老壯美學的 고찰」, 『서예학연구』 제10호, 한국서예학회, 2011; 김민학, 「東谿 趙龜命 文章論의 變貌와 散文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5.

3) 유호선, 「17C 후반-18C 전반 경화세족의 불교수용과 그 시적 형상화—김창흡, 최창대, 이덕수, 이하곤, 조귀명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2; 박상영, 「東谿 趙龜命 散文 硏究」,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3; 이홍식, 「東谿 趙龜命의 ‘花王本紀’ 연구」, 『한국언어문화』 제26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4; 이홍식, 「東谿 趙龜命의 假傳文學 연구」, 『어문연구』 제33권 3호, 한국어문교육학회, 2005; 김형술, 「東谿 趙龜命의 시문학 연구」, 『한국한시작가연구』 제16집, 한국한시학회, 2012; 정순희, 「東谿 趙龜命의 산문을 통해 살펴보는 碑誌・傳狀類의 향방 試論—〈乳母李氏墓誌銘幷序〉와 〈外祖母贈貞敬夫人李氏傳〉을 중심으로」, 2013; 강수진, 「東谿 趙龜命의 글쓰기 연구—병에 대한 인식과 극복을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제34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5; 박희수, 「東谿 趙龜命 遊記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5; 김광섭, 「조귀명이 제시한 靜觀의 관찰 방법과 滑稽의 修辭」, 『동양고전연구』 제72집, 동양고전학회, 2018. 참고로, 문학론과 함께 문학 작품의 일부를 분석한 연구는 각주 2)에 제시하였음을 밝혀둔다.

4) 송혁기, 「조귀명 산문의 작가의식과 구현 양상」, 『한문학논집』 제52집, 근역한문학회, 2019; 박희수, 「조귀명의 우열관과 산문의 특성에 관하여」, 『민족문화』 제53집, 한국고전번역원, 2019.

5) 『乾川藁』 2책에는 「鄭伯克段于鄢」에서부터 「秦康公送公子雍于晉」까지 18편의 기사가 보이는데 이는 『좌전』의 일부 대목을 그대로 베껴 놓은 것이다.

6) 『東谿集』 권7의 잡저 가운데 「讀史」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는 유사한 두 가지 역사 사건을 정리한 기록 34칙, 한 가지 역사 사건을 다른 역사 사건에 견주어 평가하는 기록 27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문학 작품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고, 또 그 작품들이 다른 작가의 작품과 비교했을 때 독특한 면이 감지된다.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바, 참신한 소재 취택과 독창적 글쓰기 모색 등은 조귀명 문학의 남다른 면모이다. 범범하게 보자면 역사 소재 산문에서도 이를 벗어나는 점들은 확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독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거부하기 힘든 역사 사실을 문학 소재로 활용하는 경우, 그의 문학적 특징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역사 소재 산문이 '객관적 사실 기록'으로서 인식되는 역사서를[7] 토대로 하여 작가의 문학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어쩌면 창작 영역의 편폭이 제한된 글쓰기 양식이기[8] 때문이다. 말하자면, 장르의 글쓰기 관습이 강하게 작용하고 소재가 가지는 내용의 스펙트럼이 다채롭지 못한 역사 소재 산문의 창작 여건 속에서 그의 독창적이고 파격적인 글쓰기가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동일한 역사를 소재로 창작된 다른 작가의 작품과 비교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역사 소재 산문은 조귀명의 문학적 특수성을 보다 면밀하게 간취할 수 있는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조귀명의 문학 연구를 통해서도 지적되었듯이 그가 문학의 지향으로 선정하고 애호했던 인물이 소식이었다는 점도[9] 조귀명의 역

---

7) 역사서의 서술이 사관의 개인 가치관과 견해에 견인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기록을 원칙으로 하였던 점은 부정할 수 없다. '春秋筆法'이나 '董狐直筆'로 대표되는 유가의 역사 서술 강령에서도 이러한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8) 이러한 점은 역사 인물 또는 역사 사건이 가지는 상징성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한문의 대표적 글쓰기 방식인 고사의 활용이 그 상징성을 강화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백이·숙제는 절개의 상징이므로, 백이·숙제를 소재로 한 역사 소재 산문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든 절개라는 내용이 일부 다뤄지기 마련이다.

9) 조귀명의 문학과 소식의 영향 관계를 밝힌 논문은 다음과 같다. 이태희, 「東谿 趙龜命의 蘇東坡 수용 양상」, 『한국고전연구』 제35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7, 37-68면; 김민학, 「東谿 趙龜命의 소식 문학 수용과 변용 양상 연구」, 『대동한문학』 제55집, 대동한문학회, 2018, 97-136면. 이들은 문학론을 중심으로 다루거나 또는 작품 일부의 주제 및 표현 측면에서 드러나는 소식 문학의 수용과 변용 양상을 다루었다. 특히 김민학은 역사 소재 산문의 하나인 「賈誼論」을 소식과의 영향 관계 내에서 분석하기도 하였다. 그는 조귀명의 소식에 대한 지향을 史論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고, 조귀명의 역사 소재 산문 중 하나인 「가의론」에 대해 소식 문학을 학습한 결과로 보며, 당시 탕평정치와 결부하여 이해하였다. 그러나 이는 조귀명에게서 보이는 소식에 대한 취향 경향과 사론 산문의 주된 창작 양상을 고려하지 않은 誤讀인 듯하다. 우선 조귀명의 산문에서는 소식의 소품적 특성에

사 소재 산문을 주목하게 한다. 특히 역사 소재 산문에 귀속되는 史論 散文은 전대의 논의를 비판하고 자신의 논리를 세우는 것이 주된 창작 양상인데, 그 중 사론 산문의 전범으로 평가되었던 소식의 논의는 조선 문인들에게 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었다.[10] 특히 조귀명은 자신만의 독창적 견해를 세운다는 점에서 소식을 높이 인정하였던 만큼 그에게 소식은 문학의 지향점인 동시에 역사 소재 산문의 지면 내에서 논파해야 할 존재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역사 소재 산문에서는 자신의 지향점인 소식을 그와는 또 다른 創見으로 계승 변용하고자 한 조귀명 문학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조귀명의 역사 소재 산문을 살펴봄으로써, 작가의 창작 영역이 어느 정도 제한된 ‘역사’라는 소재를 가지고 조귀명의 개성적이고 파격적인 글쓰기가 어떻게 문학적으로 구현되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진실’ 사이에서 발현되는 조귀명의 창조적 역량을 엿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소식에 대한 남다른 애호와 비판적 계승

조선 문인 가운데 조귀명은 특히 소식에 대한 애호와 지향이 강했던 인물이다. 그는 한유와 구양수의 문장을 짓지 말고 차라리 소식의 문장을 지으라고 주장하였으며,[11] 소식의 문장을 배웠다고 자처하기도 했다.[12] 이렇게 그가 소식을 지향했던 이유는 바로 소식 자신만의 ‘意’를 문학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귀명은 소식의 문학에 대해 ‘의’가 뛰어났다고 평가함은 물론, 이치에는 위배되지만 自得을 통해 고인의 말이 아닌 자신의 말을 하였다

주목한 취향과 논변류 산문을 수용하고자 하는 측면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소식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사론 산문뿐만 아니라 그의 유기 작품에서도 보인다. 게다가 「가의론」에서 소식의 작품을 비판하는 것은 조귀명뿐만 아니라 사론 산문에서 보이는 주된 창작 양상이며, 이 작품을 당대 탕평정치와 결부하기에는 근거가 없어 논리적 비약이 크다. 본고에서는 「가의론」을 분석하되, 소식의 작품을 비판하는 다른 작가의 작품과 비교를 통해서 그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10) 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정하정, 「조선 사론 산문의 한 단면—소식의 사론 산문에 대한 비판 양상—」, 『한국고전연구』 제3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5.

11) 趙龜命, 「贈羅生沉序」, 『東谿集』 권1. “故曰, 與其爲韓爲歐, 毋寧爲蘇氏.”

12) 趙龜命, 「焚香試筆」, 『東谿集』 권8. “余笑曰, 余故學蘇者, 問之蘇可也.”

고 하고,[13] 소식의 특장을 의론에서 찾기도 하였다.[14] 그뿐만 아니라, 조귀명 스스로 독창적인 의를 수립하려고 하였는데 그 점이 바로 소식을 통해 꿈꾼 것이라고까지 하였다.[15]

따라서 조귀명의 문학 작품에서는 소식의 직접적 영향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일례가 遊記이다. 조귀명의 유기는 소식의 짧고 禪趣가 뛰어난 작품에 취향을 가졌던 만명 소품 작가들의 영향을 받았고, 실제로 조귀명이 소식의 소품 유기인 「記承天寺夜遊」를 애호하기도 하였다.[16] 그러나 이와는 또 다른 맥락에서 조귀명의 역사 소재 산문 역시 소식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17]

그중 대표적으로 「賈誼論」은 조귀명이 동일 제목의 소식 작품을 비판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賈誼는 孝文帝 때 최연소의 나이로 박사가 되었으나 周勃 등에 의해 모함을 받아 長沙王의 太傅로 좌천되고, 이후 梁王의 태부가 되었을 때 양왕이 낙마하여 급서하자 그 일을 애도하다 죽은 인물이다. 「弔屈原賦」의 작가로도 익히 알려져 있는 가의에 대한 평가는 뛰어난 재주를 지녔음에도 불우했다는 것이 주류를 이룬다. 소식은 이러한 가의에 대해서, 원대한 뜻을 품었지만 주발 등과 교유하며 변화를 기다릴 줄 몰라 스스로 몸을 해쳤다고 논평하였다.[18] 오랫동안 불우의 상징과 애탄의 대상으로서 인식되

---

13) 趙龜命, 「答敬大書」, 『東谿集』 권10. “蘇氏之識, 眞於權變放達. 故其發於文字者, 類能刺骨洞髓, 玲瓏透徹, 譬如饞人評味, 浪子說情, 理雖非正, 而境則實眞, 自足以動人心腸也. 是之謂自得, 自得之深, 毋論正偏高下, 而文皆好.”

14) 趙龜命, 「焚香試筆」, 『東谿集』 권8. “余曰, 夫有意於文者文勝, 文勝則情遜, 此柳所以不及韓也. 歐文哀, 蘇文不哀, 蘇以其議論理致勝, 故爾.”

15) 趙龜命, 「答敬大書」, 『東谿集』 권10. “嗚呼! 發深眇之理於造次之間, 藏靈悟之解於尋常之中, 意愈奇而體愈正, 論愈險而文愈易, 此吾所夢想於坡公者, 而未尋其蹊逕也.”

16) 박희수, 앞의 글, 2015, 35-36면 참조.

17) 박희수는 조귀명의 소식 취향을 만명 소품의 영향 하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17-18세기 조선에서 소식 산문의 비평 양상이 정통 古文의 미의식을 추구하는 경향과 소품적 특성에 주목하는 경향으로 대별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귀명의 소식에 대한 취향은 이 두 경향이 혼효하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역사 소재 산문은 바로 전자, 즉 정통 고문의 미의식을 추구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조귀명 유기에서 보이는 소식에 대한 지향과는 또 다른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박희수, 앞의 글, 2015, 36면; 송혁기, 앞의 글, 2006, 73-76면 참조.

18) 蘇軾, 「賈誼論」, 『唐宋八大家文鈔』 권130. “爲賈生者, 上得其君, 下得其大臣, 如絳灌之屬, 優游浸潤而深交之, 使天子不疑, 大臣不忌, 然後, 擧天下而惟吾之所欲爲, 不過十年, 可以得志. 安有立談之間, 而遽爲人

었던 가의에 대해 내린 소식의 새로운 평가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의 견해는 다시 한 번 조귀명, 柳世鳴(1636-1690), 蔣華植(1871-1947) 등에 의해 부정된다. 이들 중 유세명 작품은 소식의 견해에 대한 비판 지점이 조귀명과 동일하다. 이 때문에 함께 고찰하여 조귀명의 작품과 비교하고자 한다.

우선 유세명의 작품은 ‘가의가 주발 등과 교유를 맺으며 변화를 기다려야 했다’는 소식의 견해가 의리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19] 신하된 도리로서 군주를 섬길 적에는 바른 도리로 자신의 마음을 다할 뿐, 자기 말의 채용 여부는 개의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0] 이는 유가에서 말하는 신하가 지켜야 할 事君의 도리[21]에 입각하여 가의가 주발 등과 교유를 맺을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소식의 견해를 부정하는 것이다. 유세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래와 같이 다시 한 번 자기 주장의 근거를 제시한다.

> 게다가 오랜 세월을 두고서 서서히 무젖 듯 깊이 교유하는 것을 어찌한단 말인가. 도가 같지 않는데 함께 합하길 구하는 것은 그 형세가 머리를 굽히고 뜻을 누르며 아부하고 아첨하여서 스스로 고루한 데에서 나올 뿐이다. 이는 진실로 王良의 詭遇의 방법이고 陳代의 枉尺의 논의이다. 가의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더라도 나는 그가 반드시 차마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하물며 자기를 굽혀 어찌 도를 펼 수 있으랴! 주발, 관영과 깊이 교유를 맺어서 원하는 바를 한다는 것도 잘못되었다. 나아가기를 바른 도리로써 하지 않으면 이어가기를 바른 도리로써 하는 자가 없을 테니 이것은 이치이다. 동파가 일찍이 이를 말하였는데, 지금 그 이야기가 어찌 그리도 어긋난단 말인가![22]

痛哭哉?”

19) 柳世鳴, 「讀蘇東坡賈誼論」, 『寓軒集』 권5. “至謂絳灌君臣相得之分, 非特父子骨肉手足. 爲賈生者, 上得其君, 下得其大臣絳灌之屬, 優游浸漬而深交之. 然後惟吾之所欲爲, 此言却不是. 其爲害義理亦甚矣.”

20) 柳世鳴, 「讀蘇東坡賈誼論」, 『寓軒集』 권5. “若生之於絳灌, 不翅如鸞鳳之於鷄群, 其不可交結而相驩也明矣. 君子之事是君也, 必以其道, 若其言之用不用, 有非在我者. 吾惟盡吾心焉已矣, 烏有冀其言之必用, 懼其道之不合. 而先自結於權臣, 乃徐爲之計耶?”

21) 이는 『孝經』에 수록된 “군자가 임금을 섬김에, 나아가서는 충성을 다할 것을 생각한다.[君子之事上也, 進思盡忠.]”라는 공자의 말을 연상케 한다.

22) 柳世鳴, 「讀蘇東坡賈誼論」, 『寓軒集』 권5. “且所謂優游浸漬而深交之者, 將奈何? 道不同而求與之合, 其勢必出於屈首抑志, 阿徇諂附, 以自固而已. 此眞王良詭遇之術. 陳代枉尺之論, 使賈生而爲之, 吾知其必不忍也. 況枉己其能伸道乎? 謂其深交於絳灌, 而惟所欲爲者, 亦謬矣. 進不以正, 未有繼之以正者, 斯理也. 東坡嘗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가 내세운 또 다른 근거 역시 유가의 도리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論語』의 "도가 같지 않으면 서로 도모하지 않는다.[道不同, 不相爲謀.]"는 구절을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가의가 주발 등과 무젖 듯 깊이 교유하는 것은 王良의 詭遇[23]나 陳代의 枉尺[24]과 마찬가지이다. 즉 주발 등과 교유해야 한다는 소식의 견해를, 『孟子』의 내용을 통해서 '道不同不相爲謀'에 위배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셈이다.

사실 소식의 견해는 '가의가 주발 등과 교유를 맺으며 변화를 기다렸다면'이라는 역사상에서 이뤄지지 않았던 가정, 또는 '가의가 주발 등과 교유를 맺으며 변화를 기다려야 했다'라는 당위를 전제로 성립되는 것이다. 유세명은 소식의 그러한 가정 또는 당위를, 철저하게 유가의 도리를 통해서 논파한다. 이러한 점은 조귀명의 작품과 상당히 대조적이다.

조귀명은 역사 배경의 맥락[當時之勢]에 바탕을 둔 합리적 추론으로 소식 견해를 부정한다. 조귀명의 작품은 첫머리에서 '天下之計를 세운 자는 계책의 규모를 위해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보편타당한 명제를 제시하고, 이 명제가 가의에게 대입될 수 있는 근거들을 서술한다. 여기서 이 명제가 대입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근거의 타당성에 달려 있는데, 이는 역사 배경의 맥락에 의해 확보된다. 따라서 조귀명은 漢 건국시기부터 이뤄진 역사 전개를 바탕으로, 효문제가 등극했을 때가 天下之計를 펼 때며 효문제야말로 그러한 계책을 세울 군주임을 증명한다.[25] 이어서 가의가 효문제의 천하지계와 부합하

言之, 今其說又何其相豁耶?"

23) 詭遇는 『孟子』 「滕文公下」에 나오는 말로서 사냥할 때 수레를 정도로 몰지 않고 짐승을 속여서 몰이하는 것을 말한다. 수레를 잘 모는 王良이 奚斯와 같이 사냥하러 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다음 날에 다시 가서는 하루아침에 열 마리를 잡았다. 왕량이 말하기를, "해사는 小人이니 같이 사냥하지 못하겠다. 법도대로 말을 달리니 한 마리도 못 잡고, 짐승을 속여서 만나게[詭遇] 하니 짐승을 잡는다."라고 하였다.

24) 왕척은 『孟子』 「滕文公下」에 나오는 '枉尺而直尋'을 지칭하는 말로, 한 자를 굽혀 여덟 자를 편다는 뜻이다. 맹자의 제자 陳代가 맹자에게 "한 자를 굽혀서 여덟 자를 편다는 말도 있으니, 이렇게 하기만 하면 크게는 王道를 이루고 작게는 霸道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자, 맹자가 "한 자를 굽혀서 여덟 자를 편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利를 위주로 한 것인데, 자신을 굽혀서 남을 바르게 펴 준 자는 아직 있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25) 趙龜命, 「賈誼論」, 『東谿集』 권11. "周之衰, 文弊極於天下, 支離瑣細, 天地之氣澆漓, 而不復振, 陵夷及於暴秦, 驅天下於刀鉅鼎鑊之中, 斬伐芟除, 索然無生意. 高祖有見于是, 入關之初, 約法三章, 與天下更始,

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부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 가생이 효문제에게 기용되지 못했는데, 후세에 견식이 좁은 선비들이 다투어 가생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효문제를 탓하니 이는 당시의 형세를 헤아리지 못하고 함부로 억측한 것일 뿐이다. (…) 저 가의는, 뜻은 크지만 시세에 어두웠고 재주는 넓었지만 常例에 집착하였다. 효문제는 뜻이 無爲之治에 있었는데 가생은 반드시 개혁하는 데 분발하고자 하였고 효문제는 뜻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었는데 가생은 반드시 單于를 잡고 中行說을 치고자 하며, 구구하게 禮樂刑政의 거친 전례를 들어서 크게 질박한 교화를 무너뜨리고자 하였다. 그러니 그 말이 간절하고 그 계획이 훌륭할수록 더욱 한 효문제의 규모와 멀어졌다. 이와 같고 보면 효문제가 어찌 배척하여 변방 밖에 버려두지 않아 새로운 정치와 어긋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었겠는가? (…) 혹자가 묵묵히 있으면서 그 변화하기를 기다리지 못하였다고 질책하니 그 견해가 어찌 그리도 엉성한가.[26]

조귀명은 “뜻은 크지만 국량은 적고 재주는 유여하지만 지식은 부족하다[志大而量小, 才有餘而識不足也]”라는 가의에 대한 소식의 평가를 일부 따르면서, 가의가 올린 상소(「治安策」)의 내용을 근거로 時勢에 어둡고 상례에 집착했다는 문제점을 지목한다. 그에 의하면, 가의의 상소 내용이 효문제의 天下之計와 어긋났기 때문에 그 말과 계획이 간절하고 훌륭할수록 효문제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조귀명에게는 가생이 기용되지 못했던 것을 효문제 탓으로 돌리는 후세 선비도, 가의에 대해 변화를 기다려야 했었다고 한 소식도, 심지어 상례에 집착한 가의마저도 시세를 살피지 못한 인물들이다. 그러므로 조귀명은 이들이 파악하지 못한 시세, 달리 말해 가의가 놓였던 역사 배경의 맥락을

爲敦厖寬大之治, 享年未久, 日不暇給. 惠帝高后之際, 王室多故, 其於天下之計, 盖有不能及者矣. 文帝躬神聖之姿, 承草創之業, 思有以上繼高祖之志, 下垂子孫之法, 斟酌天下之勢, 立爲規模, 玄默含弘, 斲雕爲樸, 陰運天下, 反之於忠質之初, 不惟以建大漢萬世不拔之基, 盖將噓周秦已竭之氣, 挽天地旣衰之運, 補弊架漏, 以代天工, 類非拘儒俗學所可窺測.”

26) 趙龜命, 「賈誼論」, 『東谿集』 권11. “賈生之不用於漢文也, 後世淺見之士, 爭以惜賈生, 而咎漢文, 此不權當時之勢, 而妄爲臆逆而已矣. (…) 彼賈生者, 志大而昧於時勢, 才博而泥於故常. 文帝則意在無爲, 而賈生必欲奮其更張, 文帝則意在息民, 而賈生必欲係單于而笞中行說, 區區擧禮樂刑政之粗迹, 欲敗其大朴之化, 其言愈切, 其策愈善, 而愈遠於文帝之規模. 夫如是則安得不斥而棄之於藩服之外, 而一任其龘龘於新政哉? (…) 或者, 責其不能默默以待其變, 不已疏乎?”

통해서 자기의 주장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작품의 마지막에서 소식의 의견을 엉성하다고 비판하게 된다.

이처럼 조귀명은 유세명과 동일하게 소식의 견해를 부정하였지만 그 논리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가의가 가진 상징성과 통념을 깨고 소식의 견해를 논파하는 사론 산문의 지면에서, 그는 조선 문인들에게 가치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었던 유가의 도리 대신에, 역사 배경의 맥락을 검토하는 합리적 추론을 제시한다.

사실 사론 산문에서 소식이 가지는 위상과 그 위상을 넘어서려는 창작 경향을 고려한다면, 소식의 작품에 대한 비판적 관점은 조귀명만의 특수성은 아니다. 다음 인용문에서도 소식의 문학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자 한 의식을 엿볼 수 있는데, 다만 비판 대상이 역사에 대한 소식의 견해나 관점이 아닌, 그 글 자체에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項王에게 유세하는 侯公의 말을 보충한 소식의 글은 길고 껄끄러운 탓에 적국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부족하다. 남의 도마에 오른 고기를 빼앗아서 온전하게 돌아오면서도 은덕을 베푼 자로 하여금 도리어 그 자신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것일까 여기게 하려면, 반드시 교묘한 지략과 궤변으로 매우 음험하게 남의 마음을 驚動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한번 후공의 의도를 짐작해서 논설을 지어본다.27)

「侯公說項王辭」라는 글의 서두이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조귀명이 작품 창작의 동기를 밝히고 있다. 작품의 분석은 3장에서 진행하고, 일단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소식의 「代侯公說項羽辭」에서 부족한 부분을 고려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글을 재구성한다는 언급이다. 바로 소식에 대한 지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점이다. 소식의 「대후공세항우사」라는 작품은 작가가 역사 인물의 입을 빌려서 서술하는 擬作의 한 유형이다.28) 이는 科表에서 흔히

---

27) 趙龜命, 「侯公說項王辭」, 『東谿集』 권7. "蘇子瞻補侯公說項王辭, 曼衍齟齬, 不足以動敵國之聽. 夫奪人俎上之肉, 全而歸之, 而使德之者反疑其所居傾國, 是必有巧智詭辯險絶驚人者. 試逆其意而爲之說."

28) 여기서 말하는 의작은 작가가 역사 속에 등장했던 실존 인물의 입을 빌려서 서술하며 설정된 가상의 상황 아래에서 논의를 펼치는 일련의 작품을 말한다. 의작의 개념에 대해서는 우지영, 「擬作의

보이는 글쓰기 방식으로, 많은 문인들에 의해 창작되고 향유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식의 의작을 겨냥하여 그의 미진한 점을 지적하고, 보다 나은 글을 창작한다고 밝힌 문인은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 즉 소식의 작품을 비판 대상으로 삼아 그 견해를 부정하는 글은 많지만, 조귀명과 같이 소식의 그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품을 구성하면서 소식 글의 미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한 작품은 드물다. 이처럼 역사를 소재로 한 소식의 작품과 동일한 소재를 취택하는 동시에 그의 역사에 대한 관점과 견해가 아닌, 그 글의 구성과 짜임새를 비판했다는 점에서 조귀명의 역사 소재 산문은 자기 문학의 지향점인 소식을 계승·비판하고자 한 문학적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3. 역사의 여백에 틈입한 서사의 확장

조귀명의 역사 소재 산문에서 보이는 특징 중 하나는 역사를 바탕으로 한 문학적 재구성 및 재창조이다. 본 장에서는 그 가운데 역사의 여백에 틈입하여 서사의 확장을 이룬 작품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左準」이 이에 해당하는데, 작품의 첫머리에서 조귀명은 『좌전』을 읽고 있는 從姪 柳錫夏를 위해 『좌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辭令 10편을 짓는다고 그 창작 동기를 말하였다.[29] 이를 통해 이 작품이 과거 시험과는 무관한 개인 습작임을 알 수 있다. 지적하였듯이 의작이 科文의 한 종류인 과표에 흔히 활용되었으므로, 그 특징인 ‘역사의 여백에 틈입한 서사의 확장’은 조선 문인에게 일정 강요된 글쓰기였을 것이다. 하지만 과문의 대다수는 정해진 틀[科臼]이 존재하고 그 양상이 정형적이라는 점에서 문학성이 크게 담보되어 있지 않다.[30] 그에 반

창작 동기와 창작 양상에 대한 一考—韓信 소재 의작 작품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제41집, 동방한문학회, 2009, 341-342면 참조.

29) 趙龜命, 「左準」, 『東谿集』 권7. “庚戌夏, 余在淸州, 汝範自林川來相從. 汝範方看左傳, 余爲曉其綴文法, 相與就傳中辭令之宜有而見闕者, 補之十篇而止, 目之曰左準.”

30) 科文의 형식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그 형식의 구속력이 절대적이지는 않더라도 작가의 자유로운 창작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다. 문학성의 요소가 다양하겠으나 형식의 구속력이 문학성을 떨어트릴 개연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과문 및 과표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정경주, 「과문 표전의 형식과 문체의 특성」, 『대동한문학』 제39집, 대동한문학회, 2013; 이상욱, 「조선 과문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15.

해 조귀명의 작품은 종질의 『좌전』 글쓰기 학습이라는 현실적인 목적으로 창작되었지만, 이 역시 문학 창작의 욕구와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31)

> 魯 桓公이 齊侯[齊 僖公]에게 사신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듣자니 군께서 정나라의 일 때문에 군대를 거느리고 우리나라로 쳐들어오신다고 하는데, 과인은 삼가 저의 죄를 압니다. 일전에 군께서 융과 전투를 벌이자 제후들이 함께 달려갔습니다. 이때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제가 실제로 담당하였는데 군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죄입니다. [爵位에는] 公이 있고 侯가 있는데, 정나라는 伯입니다. 주나라의 옛 법도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때 정나라의 차례를 맨 뒤로 두었는데 정나라가 이 일로 노여움을 품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그런데 만일 군께서 노나라에게 양식을 나눠주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면 비록 정나라를 賤視하려고 한들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이미 허락해놓고 또 이 일로 토벌하시면서 '너는 어찌 주나라의 법도를 버리고서 정나라의 뜻을 따르지 않았는가?'라고 하니 저는 어리석어 따라야 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더욱이 주나라의 법도를 버리고 정나라가 기뻐하는지 노여워하는지만 살피는 것은 정나라가 장차 천하를 차지하여 정사를 펼 것이기 때문입니까? 과인은 이 점이 의혹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 齊侯가 衛侯[衛 宣公]에게 "내가 진실로 바르지 못하고 노나라의 말이 옳다. 어찌 노나라를 토벌해서야 되겠는가."라고 하고 정나라에게 요청하여 군대를 돌렸다.32)

위 인용문은 「좌준」 중 '齊衛鄭來戰于郎, 我有辭也'라는 소제목 하에 수록된 글로,33) 『左傳』 桓公 10년의 기사를 배경으로 한다. 환공 6년에, 北戎이 齊나라를 괴롭히자 제후들이 군대를 보내어 제나라를 구원하였는데 이때 鄭 公子

---

31) 「左準」은 『左傳』을 본떠 창작하였는데 이것이 문학 학습에 도움이 되며 의고파와 다른 차원이라고 언급한 조귀명의 발언은 「좌준」의 창작이 문학의 영역과 별개가 아님을 방증한다. 趙龜命, 「左準」, 『東谿集』 권7. "準者, 倣也, 倣者, 所以求益也, 非如王元美之托古竹簡, 爲誣且僭也."

32) 趙龜命, 「齊衛鄭來戰于郎, 我有辭也」, 『東谿集』 권7 左準. "公使告于齊侯曰, 聞君爲鄭之故, 步師於弊邑, 寡人敬知罪矣. 日君之有事于戎也, 諸侯共奔走焉, 班而饋餼, 寡人實司之, 不能逆君之命, 罪一也. 有公焉, 有侯焉, 鄭伯也, 遵周之舊而班鄭於後, 以嬰其怒, 罪二也. 且君而不許魯, 雖欲卑鄭, 得乎? 旣許之, 又從而討之曰, 女何不棄周之典, 而順鄭志也? 寡人不佞, 不知所適從. 且棄周典而惟鄭之喜怒是視, 是鄭將爲政於天下乎? 寡人是惑, 將若之何? 齊侯謂衛侯曰, 我實不典, 魯辭直, 庸可討乎? 請於鄭而還師."

33) 「左準」은 모두 10편의 조령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편마다 『좌전』의 기사에서 취한 소제목이 있다. 10편의 소제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齊衛鄭來戰于郎我有辭也〉, 〈鄭伯之命〉, 〈釋左驂以公命贈孟明〉, 〈三命命先且居將中軍〉, 〈伐沈誓〉, 〈絳縣人辭仕之使助爲政〉, 〈子皮授子產政〉, 〈陳桓子請許晏子毁室反宅人〉, 〈晉侯許伍舉請昏〉, 〈荀躒對景王〉.

忽이 功을 세웠다. 그리하여 제나라가 제후의 군대에 음식을 보내면서 노나라에게 차례를 정하게 하였는데, 노나라가 周王이 내린 爵位의 서열에 따라 정나라의 차례를 맨 뒤로 정하였다. 후에 이 일로 정나라가 노하여 제나라에 원군을 요청하여 노나라와 랑에서 전투를 벌였다.[34]

『좌전』에는 없는, 魯 桓公이 齊 僖公에게 서신을 보내는 이 장면은 조귀명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다. 그 스스로 “『좌전』 속에 분명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빠진 것으로 보이는 辭令을 보충하고자”[35] 했다고 밝힌 만큼 이 글은 『좌전』의 내용을 철저하게 바탕으로 하고 있다. 『좌전』을 보면, 經文에서는 ‘齊侯衛侯鄭伯, 來戰于郎’이라고 하여 제나라와 위나라가 연합하여 노나라와 교전했던 것처럼 서술되어 있으나, 傳文의 주석에는 “서로의 원한을 풀고 兩軍이 交戰하지 않고 물러갔다.”[36]라고 하였다. 조귀명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노 환공의 서신을 받은 제 희공이 정나라와 함께 군대를 돌리는 장면을 구성한 것이다. 여기서 이색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일반적인 의작과 다르다는 점이다.[37] 인용문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 역사 인물의 입을 통해서 서술되는 일반적 의작과 달리, 역사 인물들 간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의작의 일반적인 구성은 작가가 역사 속의 한 인물이라는 가정을 전제하지만, 조귀명의 작품은 작가인 조귀명이 역사 서술자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앞서 서두만 살펴본 「侯公說項王辭」에서 보다 명백하게 확인된다. 이 작품이 후공과 항우의 대화는 물론, 두 인물의 행위를 서술하고 있어 역사서와 마찬가지로 관찰자의 시점을 보이기 때문이다.[38] 더욱이 이 글

34) 『左傳』 魯桓公 10년. “冬, 齊衛鄭來戰于郎, 我有辭也. 初, 北戎病齊, 諸侯救之, 鄭公子忽有功焉. 齊人饋諸侯, 使魯次之, 魯以周班後鄭, 鄭人怒, 請師於齊, 齊人以衛師助之.”

35) 각주 30) 참조.

36) 『左傳』 魯桓公 10년. “交綏而退, 無敗績”

37) 대다수의 擬作은 역사 속에 등장했던 실존 인물의 입을 빌려서 서술을 하며 설정된 가상의 상황 아래에서 논의를 펼쳐진다. 다시 말해, 작자가 곧 역사 속 등장인물의 상황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이야기가 진행된다. 조귀명의 「左準」 내 다른 기사 역시 이와 마찬가지다. 따라서 작가가 역사의 등장인물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서술자로 설정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의작에 대해서는 우지영, 앞의 글, 341-343면.

38) 대표적으로 등장인물의 행위를 서술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예로 들 수 있다. 趙龜命, 「侯公說項

은 소식의 작품을 계승·비판하고자 창작된 만큼 조귀명의 문학적 역량이 보다 투입되어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작품의 배경은, 漢王 劉邦이 項羽에게 팽성에서 大敗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인 太公이 인질로 잡혀간 후 2년 뒤이다. 이 당시 한왕이 자신의 군대가 유리한 위치를 점하자, 이 기회에 자신의 아버지를 데려오려고 陸賈를 보내어 항우를 설득하도록 하였지만 실패하였다. 한왕은 또다시 侯公을 보내어 태공을 돌려줄 것을 항우에게 요청하였다. 『史記』「項羽本紀」에서는 후공이 가서 항우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여 태공을 데리고 왔다는 기사만 서술되어 있다.[39]

이때 놓인 육가의 상황을 짐작해보면 항우를 설득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태공이라는 인질은 항우에게 전세를 유리하게 이끌어올 수 있는 수단인 데다 이미 육가가 항우를 설득하는 데 한 번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소식은 이런 상황에서 태공을 데리고 오는 데 성공한 후공의 유세 내용이 뛰어났을 텐데, 『사기』에 누락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그 사정을 짐작해서 「代侯公說項羽辭」를 지었다.[40] 앞에서 보았듯이 조귀명은 이러한 소식의 작품이 길고 껄끄러운 탓에 항우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소식의 작품은 3000여 字나 될 정도로 상당히 긴 분량이며, 후공이 항우에게 유세하러 가기 전 한왕에게 자신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까지 담고 있다. 반면 조귀명의 작품은 830여 자이고, 후공이 항왕과 대화를 나누며 설득하는 짧은 구성으로 짜여있다.

우선, 조귀명의 작품을 보기에 앞서 소식의 작품 중 후공이 항우를 설득하는 장면을 보도록 하자.

王辭」, 『東谿集』 권7. "侯公至楚軍門, 稱漢王使, 求上謁, 項王按劍瞋目以待之. 侯公徐趨而入." 물론 이 작품의 창작 동기가 된 소식의 작품도 이와 다르지 않지만, 역사서의 서술 형태, 즉 관찰자의 시점으로 서술된 의작이 흔하지는 않다.

39) 司馬遷, 「項羽本紀」, 『史記』 권7. "是時, 漢兵盛食多, 項王兵罷食絕. 漢遣陸賈說項王, 請太公, 項王弗聽. 漢王復使侯公往說項王, 項王乃與漢約, 中分天下, 割鴻溝以西者爲漢, 鴻溝而東者爲楚. 項王許之, 即歸漢王父母妻子. 軍皆呼萬歲. 漢王乃封侯公爲平國君."

40) 蘇軾, 「代侯公說項羽辭」, 『東坡全集』 권100. "侯公之辯, 過陸生矣, 而史闕其所以說羽之辭, 遂探其事情以補之, 作代侯公說項羽辭."

후공이 말하였다. “秦나라 백성이 살아가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漢王이 함곡관에 들어가서 터럭만큼도 범하지 않았고 진나라의 그물을 풀어주고 법을 세 가지로 줄여주자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으니, 이는 진나라에서 왕 노릇하지 못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왕께서 이르러 불을 지르고 도륙하여 진나라보다 더 혹독하게 하여 진나라 백성들이 실망하였으니, 무엇으로 仁愛할 수 있겠습니까. 대왕께서 처음 제후와 함께 懷王에게 약속했을 때에는 먼저 함곡관에 들어간 자가 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한왕이 九死一生하는 계책을 내어 함곡관에 진입하여 결전을 벌여서 그 군주를 사로잡아 대왕을 기다렸는데, 대왕께서는 약속을 저버리고 그를 남쪽 鄭나라 땅에 옮겨두었으니 무엇으로 信義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대왕께서는 대대로 초나라 장수를 지내왔는데 大義를 들어 일어났을 때 그 후사를 세우지 않아 천하를 거느리지 못하도록 하고 마침내 회왕을 함께 세워 그에게 명을 듣게 하였고, 천하가 장차 안정되려 할 때에는 결국 겉으로 의제를 섬기는 척했다가 내몰아 죽였으니 무엇으로 의로움이 있다 하겠습니까. 충성스러운 范增, 지혜로운 陳平, 용맹한 韓信은 모두 호걸이니, 천하를 다투는 자는 이 세 사람을 보고 存亡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범증은 의심 때문에 죽게 하고, 진평과 한신은 떠나보내 등용하지 않았으니 무엇으로 지혜롭다 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한왕이 함곡관에 들어가자 천하가 그 인애로움에 귀의하였고, 도로 三秦을 평정하자 천하가 그 신의에 귀의하였으며, 의제를 위하여 상복을 입자 천하가 그 의로움에 귀의하였고, 진평과 한신을 등용하자 천하가 그 지혜로움에 귀의하였습니다. 이 네 가지는 대왕께서 평상시 가진 자질이자 기를 수 있는 도구였는데도, 버려두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한나라가 모두 얻어서 거두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대왕께서는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41]

소식이 후공의 입을 통해 말하는 요점은 항우가 태공을 돌려보냄으로써 信義를 보이라는 것이다.[42] 항우가 신의를 보여 태공을 돌려보내는 은혜를 베

41) 蘇軾, 「代侯公說項羽辭」, 『東坡全集』 권100. “侯公曰, 夫秦民之不聊生久矣. 漢王之入關也, 秋毫無所犯, 解秦之罟, 約法三章, 民大慶悅, 惟恐其不王秦也. 大王之至, 燔燒屠戮, 酷甚於秦, 秦人失望, 何以爲仁? 大王始與諸侯受約懷王, 先入關者, 王之, 漢王出萬死不顧一生之計, 叩關決戰, 降俘其主, 以待大王, 而大王背約, 遷之南鄭, 何以爲信? 大王以世爲楚將, 方舉大義, 不立其後, 無以令天下, 遂共立懷王而稟聽之, 及天下且定, 乃陽尊爲帝而放殺之, 何以爲義? 以範增之忠, 陳平之智, 韓信之勇, 皆人傑. 爭天下者, 視此三人爲之存亡. 然而增死於疑, 平、信去而不用, 何以爲智? 是以漢王於其入關也, 天下歸其仁. 其還定三秦也, 天下歸其信. 爲義帝縞素也, 天下歸其義. 其用平、信也, 天下歸其智. 此四者, 大王素有之資, 可畜之具, 惟其委棄而不用, 故漢皆得而收執之, 是以大王未得所以稅駕也.”

42) 蘇軾, 「代侯公說項羽辭」, 『東坡全集』 권100. “今不歸之, 以伸區區之信義, 紓旦夕之急, 臣恐漢人怒氣益奮, 戰士倍我, 是大王又以其資遺漢. 且將索然而爲窮人矣, 此臣所以爲大王寒心也. (…) 臣聞懷敵者強, 怒敵

풀지 않는다면, 적의 노여움을 사서 초나라가 더 빨리 망할 것이라는 생각이 그 바탕에 깔려있다. 그러한 신의를 보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초나라가 지금 열세에 놓여있기 때문인데, 위 인용문은 초나라가 그러한 열세에 놓인 이유를 나열한 대목이다.

소식에 따르면, 항우가 진나라의 정벌 과정에서 잔혹하였던 점, 函谷關에 먼저 들어간 자를 왕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점, 의제를 섬기는 척하다가 그를 죽인 점, 진평과 한신을 떠나보낸 점은 인의예지와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한왕은 함곡관에 들어가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고 三秦을 평정하였으며 義帝가 죽자 상복을 입었고 陳平과 韓信을 등용했으니, 인의예지를 모두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소식은 항우가 열세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인의예지를 지키지 못한 데에서 찾고, 이러한 상황을 태공을 돌려보내야 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 이러한 항우와 한왕에 대한 평가는 보편적인 것이다. 게다가 인의예지의 평가 기준 역시 성리학적 이념 윤리를 중시하는 조선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소식의 이러한 글을 비판하고 새로운 구성을 보이고자 했던 조귀명의 작품은 어떠할까?

> 후공이 말하였다. "저 사람이 자애로움도 대왕만 못하고 무예도 대왕만 못한데 천하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모아서 자기에게 복속시킬 수 있었던 것은 단지 名義를 빌렸기 때문입니다. 德은 내적인 것이고 명의는 외적인 것입니다. 내면에 덕을 쌓은 자가 사람들을 일깨우는 것은 더디고, 외면에 명의를 드러낸 자가 시속을 속이는 것은 빠른 법입니다. 한왕이 義帝에 대해서, 父兄 간으로 대대로 섬긴 은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신하가 되어 두 마음을 품지 않겠다는 소원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만일 한왕이 천하를 얻었다면 의제는 분명 헌신짝처럼 버려졌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九江王이 의제를 죽이자 천하가 원통해하는 것을 보고는 이를 계기로 천하에 호령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대왕에게는 임금을 시해하였다는 이름을 씌우고 자신은 이를 討逆하는 의리 편에 서서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번번하게 얼굴을 들고서 제후들을 선동하고 천하의 이목을 우매하게 만들었습니다.[43]

者亡. 大王於漢, 有足懷而制之, 乃欲怒而鬥之, 臣意天溺大王之衷, 將遂孤楚矣."

43) 趙龜命, 「侯公說項王辭」, 『東谿集』 권7. "侯公曰, 彼仁惠不如大王, 威武不如大王, 而所以網羅天下之人心而屬之己者, 徒以名義之假借也. 夫德內也, 名外也. 蓄之內者, 喻於人也遲, 暴之外者, 欺於俗也速. 漢王之

위 인용문은 조귀명에 의해 구성된, 후공이 항우에게 유세하는 장면이다. 조귀명은 후공의 입을 통해서, 항우가 한왕보다 훌륭한 자애[仁惠]와 무예[神武]를 가졌음에도 수세에 몰리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 이유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名義’인데, 이는 통념에 지나지 않는다.[44]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명의’를 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과정이다. 한왕이 천하를 얻었다면 의제를 버렸을 것이라는 단정이나, 겉으로만 명의를 활용하고 천하의 이목을 우매하게 만들었다는 언급은 한왕의 신하인 후공의 발언이라 하기에는 지나쳐 보인다. 그만큼 조귀명은 신하의 입장에서 심한 발언을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명의만 잘 빌린다면 천하를 선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뒤의 내용과 연결되면서 “교묘한 지략과 궤변으로 남의 마음을 驚動시키기” 위해 그가 선택한 설득 전략임을 알 수 있다.

> 지금 대왕을 위해 계책하자면 천하의 名義를 거두어 楚나라로 가져와서 천하의 주도권을 은밀히 빼앗는 것이 낫습니다. 신하들을 모아서 고하기를 ‘남의 아비를 잡아 그 아들과 거래하는 것은 의리가 아니다. 내가 어찌 천하를 이롭게 여겨서 나의 의리를 버리겠는가.’라고 하고, 태공을 예우해서 安車에 태우고 공손히 호위하여 漢나라로 되돌려 보내소서. 그러면 저 한왕이 어질지 않을지라도 천하의 의론을 두려워하고 천하의 형세를 알게 되어 머리를 숙여 명령을 듣고 갑옷을 거두어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은 진실로 대왕의 계략에 빠져 대왕께서는 의리 쪽에 서고 자신은 불의 쪽에 서게 되어 명의로 삼은 이유를 잃게 될 터이니, 천하가 누구의 편을 들어주겠습니까.[45]

조귀명은 명의를 초나라로 가져오라고 제안하고, 태공을 돌려주는 것이야

於義帝也, 非有父兄世事之恩而委質不二心之願, 使漢得天下, 義帝固爲其弁髦矣. 彼見九江王之戕義帝, 而天下寃之也, 則謂此可以爲號於天下, 遂負大王以弒君之名, 而自處以討逆之義, 攘臂抗顔, 愚天下之耳目.”

44) 한왕이 의제를 發喪한 후 항우를 칠 名義를 얻었다고 보는 견해는 주자뿐만 아니라, 조선의 여러 문인들에게서 확인될 만큼 보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자료는 이를 잘 보여준다. 崔愼, 「語錄」, 『鶴庵集』 권2. “漢高之爲義帝發喪, 而率諸侯討項羽者, 實是借名假義, 而因此得天下, 則孰謂漢高之討籍, 出於純忠赤心乎? 然其明大義於天下之功, 甚美甚盛. 故朱子於綱目, 表而出之, 大書特書, 深褒與之.”

45) 趙龜命, 「侯公說項王辭」, 『東谿集』 권7. “今爲大王畫者, 不如收天下之名, 反之於楚, 以陰奪天下之機而已. 屬羣臣而告之曰, 夫執人之父而市其子, 非義也. 吾豈利天下而棄吾義哉? 禮太公, 載以安車, 謹衛而歸之漢. 彼漢雖不仁, 畏天下之議, 而識天下之勢, 不得不屈首而聽命, 束甲而歸國矣. 不然, 彼固中大王之計, 處大王於義, 而自處於不義, 失其所以爲名者, 天下將誰與?”

말로 명의를 취할 수 있는 좋은 행위임을 강조한다. 여기서 자기 군주에 대한 지나친 발언의 목적이 분명해진다. 천하를 얻기 위해서는 재주와 속마음이 어떠하든 명의를 취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앞서 조귀명에 의해 지목된 한왕의 행위를 통해 드러난 셈이다. 바꿔 말하면, "외면에 명의를 드러낸 자는 시속을 속"일 수 있다는 논리가 한왕의 행위에 의해 증명되면서, 명의는 천하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강조되고, 그 강조된 명의는 다시 태공을 돌려주는 행위로 수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세 논리는 상대 설득이라는 '목적'을 위해 자기 군주의 불순한 점을 들춰내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인용문 앞에서 조귀명은, 한왕이 "태공을 끓인 고깃국을 나누어 먹자"[46]라고 대답했던 것도 항우로 하여금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도록 함으로써 명의를 차지하기 위한 행위라고 지적하는데,[47] 이 부분도 다르지 않다. 이러한 설득 방식은, 이념 윤리보다는 설득이라는 현실 결과를 중시하는 논리로서, 인의 예지에 입각하여 항우를 설득하는 소식의 방식과 대조적이다.

조귀명은 객관 세계에 대한 정밀한 관찰과 특유의 해석을 통해서 문학적 형상의 재창조 및 독창적인 창작 수법을 이룩하였다고 평가된다.[48] 살펴본 바처럼 그가 역사 소재 산문에서 소식을 계승·비판하고자 내놓은 현실 결과 중심의 설득 방식과, 일반 의작과 달리 역사서의 서술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 독자적 견해를 담아 이뤄낸 역사 서사의 확장 역시 이러한 조귀명 문학의 특징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 역사 기록을 벗어난 상상적 연출 구성

앞서 살펴본 사론 산문이나 의작의 경우, 작품의 전개에서 역사서의 기록

46) 司馬遷, 「項羽本紀」, 『史記』 권7. "漢王曰, 吾與項羽俱北面受命懷王, 曰約爲兄弟, 吾翁卽若翁, 必欲烹而翁, 則幸分我一桮羹."

47) 趙龜命, 「侯公說項王辭」, 『東谿集』 권7. "今其請太公歸也, 亦名耳. 彼其於父母妻子, 睥然無不忍之心, 分羹之對, 大王實臨之. 使是語之反而挑大王之怒, 而汗大王之鼎鑊也, 則彼固將縞素而哭於軍, 曰: '項王無道, 殺其君之不足, 而又殺諸侯之父, 是非盡天下之君父以快其心, 不止也. 吾非報吾私讐, 爲天下之君父報讐也.' 又以此爲號而激天下之怒."

48) 강민구, 앞의 글, 1990, 54면 참조.

또는 역사 사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통념을 깨는 참신한 의론을 주장하든, 역사서에서 배제된 장면을 서사화하든 간에 소재가 되는 역사의 전후 맥락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작가에게 주어진 창조적 공간이 일부 제한되기도 한다.[49] 하지만 본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好士」는 四君子를 소재로 작가의 자유로운 창조 역량을 잘 보여준다.

주지하듯이 사군자는 공통적으로 많은 식객을 두었다. 그중 맹상군은 ‘鷄鳴狗盜’의 고사로 알려져 있듯이 식객에 도움을 받아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인물이다. 이에 대해서 왕안석이 「讀孟嘗君傳」을 남겨 비판하였고, 이 작품으로 인하여 조선에서는 맹상군의 得士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었다.[50] 왕안석의 작품은 名篇으로서 익히 알려져 있지만, 논의의 전개를 위해 전문을 제시한다.

> 세상 사람들은 모두 “孟嘗君이 인재를 잘 얻었으니, 그 때문에 인재들이 그에게 歸依하였고 끝내는 그들의 힘을 빌어서 虎豹와 같은 秦나라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라고 칭찬한다.
>
> 아아! 孟嘗君은 다만 닭 울음 흉내를 잘 내고 개구멍으로 들어가 도둑질을 잘하는 무리의 우두머리였을 뿐이다. 어찌 훌륭한 인재들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强盛한 齊나라의 權力을 독차지하면서 제대로 된 인재 한 사람만 얻었어도 南面하여 帝王 노릇을 하며 秦나라를 제압할 수 있었을 터인데, 오히려 무엇 때문에 닭 울음을 흉내 내고 개구멍으로 들어가 도둑질하는 사람의 힘을 빌릴 필요가 있었겠는가. 대저 닭 울음을 흉내 내고 개구멍으로 들어가 도둑질하는 무리가 그의 집에 출입한 것이 바로 훌륭한 인재가 찾아오지 않은 근본 이유였던 것이다.[51]

---

49) 역사 기록의 불완전성에 기인하여 역사 소재 산문은 작가의 상상력을 기반으로 재창작되는 경향을 띤다. 심지어 역사 사실에 대한 평가를 위주로 하는 사론 산문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 다만 본고에서 주목한 조귀명 역사 소재 산문 가운데 「好士」는 역사상에서 있을 수 없는 장면을 상상력을 통해 구성한다는 점에서 이들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학적 상상력과 사론 산문의 창작 경향에 대해서는, 백진우, 「역사의 여백과 문학적 상상력—史論 散文의 史實 解釋 方式에 대해」, 『민족문화연구』 제54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1b, 125-130면 참조.

50) 왕안석의 「독맹상군전」뿐만 아니라, 조선 문인에게 필독서였던 『자치통감』에 보이는 사마광의 논평 역시 맹상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영향을 끼쳤으리라 짐작된다. 『資治通鑑』 권2. “今孟嘗君之養士也, 不恤智愚, 不擇臧否, 盜其君之祿, 以立私黨張虛譽, 上以侮其君, 下以蠹其民. 是奸人之雄也. 烏足尙哉? 書曰, 受爲天下逋逃主, 萃淵藪, 此之謂也.”

위처럼 왕안석은 맹상군에 대해 '得士'하였다고 하는 기존 평가를 거부한다. 그에 따르면, '계명구도'하는 식객의 힘을 빌린 것이 오히려 맹상군에게 훌륭한 인재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훌륭한 인재가 있었다면 애초에 '계명구도'하는 식객의 힘을 빌릴 일이 없기 때문이다. 맹상군의 동일한 행위를 두고 세상과 반대의 결론을 내리는 이 작품은 90자밖에 되지 않는 짧은 편폭 속에 명쾌한 논지를 담아낸 수작이다. 실제로 이 작품은 맹상군에 대한 기존 인식을 전환하는 데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鷄鳴狗盜之雄'이라는 관점을 고착시켰을 만큼 파급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鄭逑(1543-1620), 魏伯珪(1727-1798), 金麟燮(1827-1903) 등 조선의 문인들이 「書王荊公讀孟嘗君傳後」라는 제목으로 왕안석의 논의에 동조하는 작품을 남긴 점이나,[52] 경연에서 왕안석과 같은 논리가 언급되었다는 점은 이를 방증한다.[53]

그렇다면 '맹상군이 훌륭한 인재를 얻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새삼 특이할 것이 없다. 조귀명의 「호사」에 보이는 맹상군에 대한 관점 역시 이러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보편적 주제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접근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맹상군이 자신의 봉토인 薛 땅에 성과 궁궐을 조성하고 낙성식을 열어 사군자가 모이게 된다는 설정 위에서 진행된다. 중심 내용은 맹상군과 신릉군의 대화인데, 그 전개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회에서 맹상군이 술에 취해, 세 명에게 식객이 자신보다 많을 것이라고 말한다.

【2】 그러자 신릉군이, 군(맹상군)은 식객이 많은데 그중 핵심 인재가 누구인지

51) 王安石, 「讀孟嘗君傳」, 『唐宋八大家文鈔』 권90. "世皆稱孟嘗君能得士, 士以故歸之, 而卒賴其力, 以脫於虎豹之秦. 嗟乎! 孟嘗君, 特鷄鳴狗盜之雄耳, 豈足以言得士? 不然, 擅齊之强, 得一士焉, 宜可以南面而制秦, 尙何取鷄鳴狗盜之力哉? 夫鷄鳴狗盜之出其門, 此士之所以不至也."

52) 鄭逑, 魏伯珪, 金麟燮의 작품은 맹상군에 대한 왕안석의 논의에 동조하되, 과연 왕안석이 得士를 말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내용을 내포한다. 이에 대해서는 왕안석에 대한 조선 문인들의 인식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본고의 논의 부합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논고에서 다루기로 한다. 鄭逑, 『寒岡集』 권9; 魏伯珪, 『存齋集』 권21; 金麟燮, 『端溪先生集續』 권2.

53) 『承政院日記』 고종 2년 윤5월 8일. "使善人, 謂孟嘗親己, 則孟嘗亦當爲善人, 若使不善者, 謂之親己, 則孟嘗當作何如人耶? 不過鷄鳴狗盜之徒, 雜出其門, 故賢士所以不欲進, 孟嘗所以不得賢士也."

묻는다.
【3】 맹상군이 馮驩, 公孫戊, 田瞀, 勝臀 등을 거론한다.
【4-1】 신릉군이 맹상군의 생각에 반대하며, 군과 제나라와 골육이자 군신의 관계이니 제나라의 위기를 방관해서는 안 되는데, 이를 언급한 인재가 없다고 말한다.
【4-2】 이어서 군과 달리 자신(신릉군)의 식객 가운데 毛公과 薛公 덕에 위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으니 군의 6만 3천 명의 식객보다 낫다고 한다.
【5】 그러자 맹상군은 고개를 떨구고 식은땀을 흘린다.

식객이 많다고 뽐내고자 하는 맹상군이 신릉군과 대화하다 도리어 망신을 당한다는 줄거리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맹상군은 훌륭한 인재를 얻지 못했다’는 작품의 주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부분은 작품의 연출과 구성이다.

우선, 사군자가 한자리에서 만난다는 설정 자체가 역사상 있을 수 없는 허구성을 띤다. 또한 맹상군의 인재로 거론되는 馮驩 등의 일화나 신릉군의 인재인 毛公・薛公의 일화가 실제 『사기』 및 『전국책』과 부합하는 것처럼 등장인물들이 나눈 대화가 역사 기록을 근간으로 하는 서사성을 갖추고 있다. 게다가 인물 간 대화가 있기 전에, 맹상군이 예복을 갖춘 문사 3천과 무장한 무사 6만을 세워두었다는 과장된 묘사[54]와 그러한 맹상군이 끝내 망신을 당한다는 극적인 전개,[55] 그리고 맹상군 사후 후손들의 비극적 결말을 맞이했다는 교훈성[56] 등은 작품의 묘미를 배가한다. 따라서 이 작품 전체를 읽어보면 역사 소설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한편, 이 작품의 연출과 구성 외에도 보편적 결론(맹상군이 훌륭한 인재를 얻지 못하였다)을 이끌어 내는 논리 구조 역시 이색적이다.

신릉군이 말하였다. “군께서 대단하게 여기시니 천하에 누가 대단하다 여기지 않겠으며, 군께서 유능하다 하시니 천하에 누가 유능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

54) 趙龜命, 「好士」, 『東谿集』 권7. “孟嘗君於是欲以好士雄天下, 士之垂玉珮趿珠履, 立於堂上者三千人, 其蓬頭突鬢瞋目撫劒於下者, 又六萬有餘.”
55) 趙龜命, 「好士」, 『東谿集』 권7. “孟嘗君以面掩地, 汗出氣喘而不能語者三日.”
56) 趙龜命, 「好士」, 『東谿集』 권7. “其後孟嘗君卒, 諸子爭立, 諸侯素害孟嘗君, 與齊共伐滅之, 分其地.”

> 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속담에 '평생 인재를 기르는 것은 어느 날 그를 쓰기 위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군이 인재들과 골육이나 군신 간이 아닌데도 평생 동안 돌봐주는 것은 환란이 닥치는 날 쓰기 위해서이고, 인재들이 군과 골육이나 군신 간이 아닌데도 환란이 닥치는 날 군을 위해 일하는 것은 평소 후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군께서는 齊나라와 가깝기로 말하면 골육 간이고 신분으로 말하면 군신 간입니다. 그리고 父子 모두 제나라에서 재상을 지내면서 해마다 萬鐘의 식록과 비옥한 薛을 봉읍으로 받아 대대로 군림하고 있으니 이는 소국 제후들에 비해 큰 후원을 받은 것입니다.[57]

인용문은 【4-1】의 일부분으로, 맹상군이 馮驩, 公孫戍, 田瞀, 勝臀 등 자신의 대표 식객들을 거론한(【3】)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다. 여기서 신릉군은 두 가지를 말한다. 첫째, 인재를 기르는 것은 어느 날 쓰기 위해서이며, 둘째, 맹상군은 제나라와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에 따르면, 제나라의 위기 때 맹상군은 인재를 활용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맹상군은 齊 湣王이 淖齒에 의해 죽었을 때(BC. 284년)[58] 제나라를 구원하지 않았으며, 이때 식객 중 제나라를 구원하라고 간언하는 이도 없었다. 따라서 "식객들이 이를 몰라서 말하지 않았으면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알고도 말하지 않았다면 불충한 것"[59]이라는 논리가 성립되며, 이는 '훌륭한 인재를 얻지 못하였다'는 결론으로 연결된다.

이처럼 조귀명이 신릉군을 통해 제시한 맹상군에 대한 주장 자체는 왕안석 등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조귀명은 왕안석에 의해 고착된 '鷄鳴狗盜之雄'이라는 프레임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 대신 제나라가 위기일 때 구원을 제안한 인재가 없었다는 새로운 잣대를 적용한다. 즉 조국의 위기를 구원하도

---

57) 趙龜命, 「好士」, 『東谿集』 권7. "信陵君曰, 君自多之, 天下孰不以爲多, 君自賢之, 天下孰不以爲賢? 雖然, 無忌之見有異焉. 諺曰, 養士百年, 用士一日. 夫君於士, 非有骨肉之親、君臣之分, 而平居竭百年之養者, 爲臨難一日之用也, 士於君, 非有骨肉之親、君臣之分, 而臨難效一日之用者, 顧平居百年之養也. 夫君之於齊, 以其親則骨肉也, 以其分則君臣也, 父子相齊, 歲受祿萬鍾, 而封於薛膏腴之地, 世世南面, 比小國諸侯, 其爲百年之養大矣.

58) 「田敬仲完世家」, 『史記』 권46. "燕將樂毅遂入臨淄, 盡取齊之寶藏器. 湣王出亡, 之衛. 衛君辟宮捨之, 稱臣而共具. 湣王不遜, 衛人侵之. 湣王去, 走鄒、魯, 有驕色, 鄒、魯君弗內, 遂走莒. 楚使淖齒將兵救齊, 因相齊湣王. 淖齒遂殺湣王而與燕共分齊之侵地齒器. "

59) 趙龜命, 「好士」, 『東谿集』 권7. "君之士不知而不言, 是不智也, 知而不肯言, 是不忠也."

록 한 인재의 유무가 得士를 판단하는 준거인 셈이다. 이 판단 준거는 【4-2】에서 다시 신릉군과의 극적인 대비를 강화한다.

> 신릉군이 말하기를 “(…) 위나라는 작은 나라이고 저도 형편없는 사람이며 불러들인 객들도 참으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객 중에는 毛公이라는 분과 薛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조나라를 구하려다 위나라에 죄를 지어 두려운 마음에 십 년 동안이나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나라 군대가 大梁을 포위해 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이라 위나라의 사신이 계속 찾아와 돌아오기를 청하는 상황에서도, 어리석게도 숨기만 할 뿐 끝내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공과 설공이 그들이 숨어 살던 도박장과 술집에서 찾아와 열변을 토해, 결국 저로 하여금 면목을 부지해 천하에 떳떳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두 분이 군의 6만 3천 명의 식객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
> 그러자 맹상군은 땅에 고개를 떨구고 식은땀을 흘리며 헐떡이더니 3일 동안이나 아무 말도 못했다. 그 후 맹상군이 죽고 여러 자식들 간에 내분이 일어나자, 평소 맹상군을 노리던 제후들이 제나라와 함께 薛을 공격해 멸망시키고 그 땅을 나누어 가졌다.[60]

魏 安釐王 20년(BC. 257), 신릉군은 조나라 평원군의 요청으로 위왕의 명을 어기고 兵符를 훔쳐 조나라를 구원했다가, 안리왕의 노여움을 사서 위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조나라에 머물렀다. 당시 위나라가 진나라의 침공을 받아 신릉군의 귀환을 촉구했는데, 신릉군은 위나라 안리왕이 두려워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毛公과 薛公이 신릉군에게 위나라로 가기를 건의하였고, 신릉군은 그들의 말을 따랐다.[61] 신릉군의 이러한 행위는 제나라가 위기를

60) 趙龜命, 「好士」, 『東谿集』 권7. “信陵君曰, (…) 魏國小矣, 無忌不肖, 其致客誠無足言者. 然而臣之客, 有毛公, 薛公者, 方無忌救趙而獲罪於魏也, 恐懼不敢歸十年, 秦兵圍大梁, 國之不亡一髮耳, 魏使冠盖相屬以請, 無忌愚迷自匿, 終不知反, 毛公, 薛公捨其博醫, 慷慨立談, 遂使無忌, 得留面目, 以自立於天下. 無忌以爲是二客者, 賢於君六萬三千客遠矣. 孟嘗君以面掩地, 汗出氣喘而不能語者三日. 其後孟嘗君卒, 諸子爭立, 諸侯素害孟嘗君, 與齊共伐滅之, 分其地.”

61) 「魏公子列傳」, 『史記』 권77. “魏安釐王二十年, 秦昭王已破趙長平軍, 又進兵圍邯鄲. 公子姊爲趙惠文王弟平原君夫人, 數遺魏王及公子書, 請救於魏. 魏王使將軍晉鄙將十萬衆救趙. (…) 公子從其計, 請如姬. 如姬果盜晉鄙兵符與公子, (…) 魏王怒公子之盜其兵符, 矯殺晉鄙, 公子亦自知也. 已卻秦存趙, 使將將其軍歸魏, 而公子獨與客留趙. (…) 公子留趙十年不歸. 秦聞公子在趙, 日夜出兵東伐魏. 魏王患之, 使使往請公子. 公子恐其怒之, 乃誡門下, 有敢爲魏王使通者死. 賓客皆背魏之趙, 莫敢勸公子歸. 毛公, 薛公兩人, 往見公子曰, 公

겪을 때, 맹상군 및 그 식객들이 보여준 그것과 상반된다. 그에 따라 6만 3천 명의 식객을 가진 맹상군보다 신릉군이 훌륭한 인재를 가진 것이 증명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조귀명은 역사에 존재할 수 없는 장면을 자신의 상상력을 통해 연출한 「호사」라는 역사 소재 산문을 남겼다. 이 작품은 허구성, 서사성, 과장된 묘사, 극적인 연출, 교훈 등을 갖추고 있어서 완전한 역사 소설의 일부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게다가 왕안석의 「독맹상군전」 이래로 통념이 된 맹상군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다루면서도 鷄鳴狗盜를 입각점으로 삼지 않고, 자신만의 다른 논리 구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이러한 부분은 여타의 문인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조귀명 작품의 특징적 면모이다.

5. 나가며

조귀명은 통념을 거부하며 자신만의 解悟와 독자적인 사유를 강조한 문학론 및 그에 상응하는 개성적이고 파격적인 문학을 남겼다. 역사 소재 산문 역시 그것들과 궤를 달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그의 문학이 가지는 섬세한 결이 '독자적', '개성적'이라는 명명 하에 매몰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실 기록으로서 인식되었던 역사를 소재로 한 역사 소재 산문에서 그가 보여준 문학적 특징을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그의 문학이 통념과 보편이라는 범주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가늠하려는 시도였다.

주지하듯이 사실로서의 역사와 이를 활용한 문학 사이의 간극은 작품의 문학성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조귀명의 역사 소재 산문의 특징 역시 이 지점에서 발현된다. 다시 말해 사실로서의 역사와 작가가 그려낸 진실로서의 문학 사이를 들여다볼 때 조귀명의 문학적 특징을 다시 한 번 발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조귀명은 역사 소재 산문에서 소식을 문학적으로 비판・계승

子所以重於趙, 名聞諸侯者, 徒以有魏也. 今秦攻魏, 魏急而公子不恤, 使秦破大梁而夷先王之宗廟, 公子當何面目立天下乎? 語未及卒, 公子立變色, 告車趣駕歸救魏."

하면서도 동시에 역사적 사실의 공백 안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그려 넣음으로써 그 창조적 역량을 발휘하였다. 특히 역사를 소재로 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서사의 한계를 넘고 실리와 현실을 위주로 하는 논리를 담아내고 있다는 점은 조선 儒者의 그것과 거리가 있다.

그러나 사군자와 관련하여 군신의리의 실현 여부를 ‘得士’의 판단 준거로 내세운 점 등을 볼 때 조귀명 역시 유자의 윤리적 가치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였다. 따라서 조귀명 문학의 특징적 면모를 면밀하게 간취하기 위해서는 남과 다른 글을 쓰겠다는 작가로서의 자의식[62]과 유학 이념의 담지자인 사대로서의 의식 간의 길항 관계를 고구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후속 과제로 남겨둔다.

62) 조귀명은 작가로서의 자의식, 즉 누구나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쓰지 않겠다는 의지, 나 아니면 쓸 수 없는 글을 써낸다는 자부가 매우 강하였던 인물이다. 이에 대해서는 송혁기, 앞의 글, 2019 158면.

▮ 참고문헌

『論語』, 『孟子』, 『唐宋八大家文鈔』, 『左傳』, 『孝經』.

金麟燮, 『端溪先生集續』, 韓國歷代文集叢書 610-612, 경인문화사.
柳世鳴, 『寓軒集』, 한국문집총간 146, 민족문화추진회.
魏伯珪, 『存齋集』, 한국문집총간 243, 민족문화추진회.
鄭 逑, 『寒岡集』, 한국문집총간 53, 민족문화추진회.
趙龜命, 『乾川藁』(古 3436-26-v.1-5), 규장각 소장.
_____, 『東谿集』, 한국문집총간 215, 민족문화추진회.

강명관, 『공안파와 조선 후기 한문학』, 소명, 2007.
강민구, 「東谿 趙龜命의 文學論과 散文世界」,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90.
_____, 「英祖代 文學論과 批評에 對한 硏究 : 趙龜命·林象鼎·李天輔·李廷燮을 中心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7.
강수진, 「東谿 趙龜命의 글쓰기 연구—병에 대한 인식과 극복을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제34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5, 129-158면.
김광섭, 「조귀명이 제시한 靜觀의 관찰 방법과 滑稽의 修辭」, 『동양고전연구』 제72집, 동양고전학회, 2018, 35-66면.
김민학, 「東谿 趙龜命 文章論의 變貌와 散文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5.
_____, 「東谿 趙龜命의 소식 문학 수용과 변용 양상 연구」, 『대동한문학』 제55집, 대동한문학회, 2018, 97-136면.
김수진, 「乾川藁 評點批評 再論」, 『고전문학연구』 제39집, 한국고전문학회, 2011, 269-316면.
김형술, 「東谿 趙龜命의 시문학 연구」, 『한국한시작가연구』 제16집, 한국한시학회, 2012, 211-249면.
박경남, 「趙龜命 道文分離論의 변화와 독자적 인식의 표현으로서의 문학」, 『국문학연구』 제17호, 국어국문학회, 2008, 153-180면.
_____, 「16·17세기 程朱學的 道文一致論의 균열과 道文分離的 경향」, 『고전문학연구』 제35집, 한국고전문학회, 2009, 385-424면.
_____, 「18세기 文學觀의 변화와 '개인'과 '개체'의 발견(1)」, 『동양한문학연구』 제31집, 동양한문학회, 2010, 109-141면.
박상영, 「東谿 趙龜命 散文 硏究」,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3.
_____, 「東谿 趙龜命의 肉體的 疾故와 現實 超克」, 『고전과해석』 제6집,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09, 29-45면.
박희수, 「東谿 趙龜命 遊記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5.
_____, 「조귀명의 우열관과 산문의 특성에 관하여」, 『민족문화』 제53집, 한국고전번역원, 2019, 335-370면.
백진우, 「조선후기 史論 散文 硏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1a.
_____, 「역사의 여백과 문학적 상상력—史論 散文의 史實 解釋 方式에 대해」, 『민족문화연구』

제54호, 민족문화연구원, 2011b, 121-151면.
司馬遷 著, 정범진 역, 『사기본기』, 까치, 1994.
송혁기, 「17-18세기 조신 문인의 蘇軾 산문 비평」, 『한자한문연구』 제2호, 한자한문연구소, 2006, 73-98면.
_____, 『조선후기 한문산문의 이론과 비평』, 월인, 2007.
_____, 「조귀명 산문의 작가의식과 구현 양상」, 『한문학논집』 제52집, 근역한문학회, 2019, 157-190면
심호택, 「『通鑑節要』 이해의 시각: 전국시대의 인물관과 시대관에 나타난 宋學的 사유의 한 국면」, 『한문교육연구』 제10호, 한국한문교육학회, 1996, 339-381면.
우지영, 「擬作의 창작 동기와 창작 양상에 대한 一考—韓信 소재 의작 작품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제41집, 동방한문학회, 2009, 341-363면.
유호선, 「17C 후반-18C 전반 경화세족의 불교수용과 그 시적 형상화—김창흡, 최창대, 이덕수, 이하곤, 조귀명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2.
이종호, 「18세기 초 사대부층의 새로운 문예인식」, 『한국근대문학사의 쟁점』, 창작과 비평사, 1990, 52-89면.
이태희, 「趙龜命의 散文 연구」, 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 논문, 2000.
_____, 「東谿 趙龜命의 蘇東坡 수용 양상」, 『한국고전연구』 제35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7, 37-68면.
이홍식, 「東谿 趙龜命의 主意論적 글쓰기와 奇의 미학」,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2001.
_____, 「東谿 趙龜命의 ‘花王本紀’ 연구」, 『한국언어문화』 제26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4, 1-15면.
_____, 「東谿 趙龜命의 假傳文學 연구」, 『어문연구』 제33권 3호, 한국어문교육학회, 2005, 373-397면.
전상모, 「東谿 趙龜命의 서화비평에 관한 연구—장자적 사유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제68호, 동양철학연구학회, 2011, 7-39면.
_____, 「東谿 趙龜命의 書畫認識의 老壯美學的 고찰」, 『서예학연구』 제10호, 한국서예학회, 2011, 171-197면.
정경주, 「과문 표전의 형식과 문체의 특성」, 『대동한문학』 제39집, 대동한문학회, 2013, 83-15면.
정순희, 「東谿 趙龜命의 산문을 통해 살펴보는 碑誌·傳狀類의 향방 試論—「乳母李氏墓誌銘幷序」와 「外祖母贈貞敬夫人李氏傳」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제54집, 동방한문학회, 2013, 107-134면.
정은진, 「18세기 書畵題跋 연구(2)—숙종·경종시대 息山 李萬敷와 東谿 趙龜命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제44집, 한국한문학회, 2009, 323-377면.
정하정, 「조선 사론 산문의 한 단면—소식의 사론 산문에 대한 비판 양상—」, 『한국고전연구』 제3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5, 325-354면.

【Abstract】

Between ‘History Fact’ and ‘Literature Truth’
—A Study on Jo Gui Myoung (趙龜命)’s historical prose—

Jung, Ha-Jung*

Jo Gui Myoung (趙龜命) rejected common idea and created a unique literature, leaving the theory of literature to emphasize his own enlightenment. Historical prose does not differ from them. However, in this paper, the delicate essence of his literature was examined more closely so that it would not be buried under the name of ‘unique’ and ‘individual’. It was an attempt to gauge how far his historical prose was in the universal category. As a result, Jo Gui Myoung’s historical pros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Jo Gui Myoung, who showed a special interest in Su Shi (蘇軾), showed his consciousness to criticize and transcend Su Shi’s view through the prose of history.

Second, instead of the duty of Neo-Confucianism, he had a goal-oriented view acquired by observations of the historical world, and took a third person viewpoint different from the general Uijak (擬作) and achieved the narrative expansion of the history record.

Third, he created scenes that can not exist in history through his own imagination, and it is equipped with fictitious, epic, exaggerated, dramatic and so on and presented my conceptualized subject through my own logical structure.

Keywords: Dong-gye (東谿), Jo Gui Myoung (趙龜命), History, prose, Historical essay, Kwap'yo (科表), Uijak (擬作), Su Shi, Narrative, Imagination.

접수일: 2019.06.28 ‖ 심사일: 2019.07.16 ‖ 게재확정일: 2019.08.09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Korea University.